

# 곡성·남원·전주 '한복도시'로 뜬다

###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공모 선정...한복문화주간 등 추진 패션쇼·모델선발대회...지역문화 융합 한복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곡성과 남원, 전주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한복 도시'로 거듭난다.

16일 남원시와 곡성군 등에 따르면 남원과 곡성 등 7개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0년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통합공모'에 선정됐다. 남원시와 전주시를 비롯해 곡성군, 경북 경주시·상주시, 경남 진주시, 서울 종로구 등이다.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은 한복문화를 일상화하는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기존 '한복문화주간' 사업에서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고 '한복문화 지역거점' 사업을 새로 마련해 지역 중심의 한복문화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한복문화주간 ▲한복문화 지역거점 등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

남원시와 전주시 등은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와 연계하거나 문화예술 인프라와 협업해 발전시킨 한복 프로그램을 한복문화주간(10월 12~18일)에 진행한다.

남원시는 한복거점인 '남원예촌'에서 시민참여형 기획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한복입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전주시는 한복 패션쇼를 포함한 개막행사를 시

작으로 한복모델선발대회, 한복맛길 순례단, 한복 춤비련 야간 프로그램 등을 선보인다.

곡성군과 남원시 등은 한복문화 활성화 지역거점으로 한복착용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한복체험 및 교육, 지역문화와 한복을 융합한 상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남원시는 2가지 유형 모두 선정돼 한복문화주간을 비롯해 한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게 된다. 예술인과 시민들이 함께 하는 플라마켓, 남원만의 풍류문화를 살린 한복 전시 및 패션쇼 등을 진행한다.

곡성군은 한복의 보편성을 고찰하는 아카데미 등 교육을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심정전과 섬진강기차마을을 접목한 한복 패션쇼 등을 한복 문화주간에 선보인다.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심정축제에서 '심정향후! 학생 재현', '한복 美路(미로)' 등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관광지와 숙박시설을 연계한 한복 입기 활성화 정책과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차별화된 한복 문화콘텐츠를 개발해 주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문화체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남원시와 곡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 '2020 한복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복도시'로 도약한다. (남원시 제공)

## 농촌 용·배수 현대화 사업 정읍시, 국비 385억 확보

### 상정지구 등 상습침수 농경지 정비

정읍시가 집중호우 때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상습침수 농경지에 대해 영농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정읍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산외면 상정지구와 석우·용흥지구가 선정돼 국비 385억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제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를 통해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산외면 상정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265억원, 석우·용흥지구 배수 개선사업 1단계는 120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정읍시와 농어촌공사는 2030년까지 산외면 상정지구 농촌용수 저수지 확장과 용수로(16.3km)를 정비하고 석우·용흥지구 1단계(후지리 배수장·배수로 5.6km)와 2단계(용흥리 배수장·배수로 7.1km)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전섭 정읍시장은 "석우·용흥지구 배수 개선과 산외면 상정지구 농촌용수 공급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해예방은 물론 가뭄 상습지역에 농촌용수 개발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으로 농업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익산시·EU대표부, 그린뉴딜 정책 실현 협력 강화

### 라이터러 대사 일행 익산시 방문 저탄소 사회·기후변화 등 논의

익산시가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와 그린뉴딜 정책에 협력하기로 했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미하엘 라이터러(Michael Reiterer) 주한 EU대사 일행은 지난 15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정현을 시장과 함께 최근 세계 이슈로 떠오른 그린뉴딜정책과 기후변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라이터러 대사는 EU에서 추진 중인 '그린딜'과 유럽 도시들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국제도시협력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익산시의 참여를 요청했다.

대사는 또 도시 인구 집중으로 인한 환경 악영향을 해결하고 탄소가스 배출량 감소,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정 시장은 "유럽연합에서 그린딜을 발표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대해 활발히 논의 중인 것을 보고 인상 깊었다"며 "익산시도 최근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지원센터 건립,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한국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현을 익산시장과 미하엘 라이터러(가운데)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지난 15일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 제공)

앞서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식품클러스터의 현황과 함께 식품 정책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한편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출신인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 대사는 오스트리아 외교관으로 근무한 뒤 1998년 EU의 외교무대에 합류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군산시, 무굴착 땅속배수 신기술 사업 추진

### 발작물 논 재배에 과습·침수피해 걱정 끝...논농 기계화 신기술도 선포

군산시가 눈에 '무굴착 땅속배수 배수 기술' 시범사업에 나서 노동력과 비용절감에 대한 농가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눈은 물을 가뭄 벼를 재배할 수 있도록 조성된 농경지이기 때문에 비가 아닌 발작물 재배 때 과한 습도나 침수피해 우려가 있어 농가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과 논 기계화 신기술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일반 트랙터에 매설기를 연결해 땅을 파지 않고 부직포로 감싼 배수관을 묻는 신기술이다.

기존 방식은 굴착기로 1m 이상 깊게 파 배수관을 매설하고 다시 매워야 했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눈을 깊게 파지 않고 배수관을 묻어 논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발작물 재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장마 때 토양의 물 높이를 알맞게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가뭄 시 관수도 할 수 있어 눈에 발작물 정밀물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논농 기계화 신기술'을 선보이고 있다.

농촌진흥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해 배수 기반을 조성한 후 콩 생산성을 평가한 결과, 무설치 재배 포장보다 30% 이상 수확량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무굴착 땅속배수 시설 3ha와 기존 배수시설을 이용한 6ha의 면적에 배수기반을 조성해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신기술을 통한 발작물 논 재배 기반조성으로 소득작목 발굴과 발작물 경쟁력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